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2월 3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4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5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25년 컨테이너 물동량 2,500만 TEU 달성 목표 수립
- ◆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 계획
- ◆ 울산항만공사,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획득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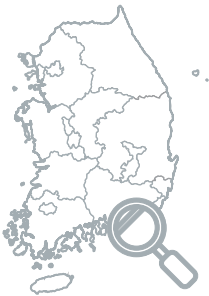
- ◆ 중국 산둥성 항만그룹, 미국 제재 선박 입항 금지 조치
- ◆ 美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파나마에 군사력 투입 시사
- ◆ 유럽, '24년 기준 러시아산 LNG 수입 사상 최고치 기록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25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 둔화 전망
- ◆ 美, 중국 등 커넥티드카 부품 사용 자동차 판매 금지
- ◆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부산항 블록체인 기반 환적 모니터링 시스템(Port-I) 소개¹⁾

부산항만공사(BPA)는 ‘2024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성과공유회에서 Port-I를 선보임

-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가 주최하였으며, BPA는 부산테크노파크의 ‘2024년 지역특화산업 융합 블록체인 공동 프로젝트’의 수요기관으로서 플랫폼 개발을 주도함
- BPA는 블록체인 기반 해운항만물류 실시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환적 모니터링 시스템인 Port-I를 개발함
- Port-I의 주요 기능으로는 선박 모니터링 및 이상 탐지, 화물 모니터링 및 이상 탐지, 부산항 전체 터미널의 통합 선석 스케줄 제공 등이 있음

BPA는 향후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로서의 입지와 역량을 다지는데 일조하고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Port-I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라 밝힘

- Port-I 서비스는 선사의 환적화물 적기 처리를 통해 선박 적재율 증가 및 추가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터미널과 운송사 등 역시 효율적인 환적 물동량 처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2.2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074>(2025.01.15. 검색)

2 부산항, '25년 컨테이너 물동량 2,500만 TEU 달성 목표 수립²⁾

❖ BPA는 '25년 주요 업무계획 확정을 통해 컨테이너 물동량 2,500만 TEU 달성 및 세계 2위 환적항 위상 유지를 목표로 수립함

❖ 목표 달성을 위해 최첨단 스마트 항만 건설,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 글로벌 주요 선사 마케팅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 밝힘

- 지난해 4월 개장한 국내 최초 완전 무인자동화 부두(서‘컨’ 2·5단계)의 확장과 진해신항 건설 등 스마트 항만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예정임
- 더불어 환적 거점항만으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항 운영사 간 자발적 통합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 자성대 부두 운영사의 감만·신감만 부두 이전에 따른 북항 교통체계 개선, 터미널 내부도로를 활용한 환적화물 운송 등 물류 흐름 개선 추진 예정임
- 또한 환적 모니터링 시스템(Port-I), 부두 간 환적운송시스템(TSS), 항만형 하이패스(E-slip)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 적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힘

❖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항만 구축 및 사회공헌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 제고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탄소제로 달성을 위해 육상 전원 공급설비(AMP) 이용 및 저속운항 선박 지원, 야드트랙터 무탄소 전환, 메탄올·암모니아·LNG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을 위한 벙커링 구축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해양레포트 콤플렉스 도입 및 마리나 상업시설 운영 등 북항 재개발 지역 공공콘텐츠 확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및 기업 육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1.15.),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150>(2025.01.15. 검색)

2) 인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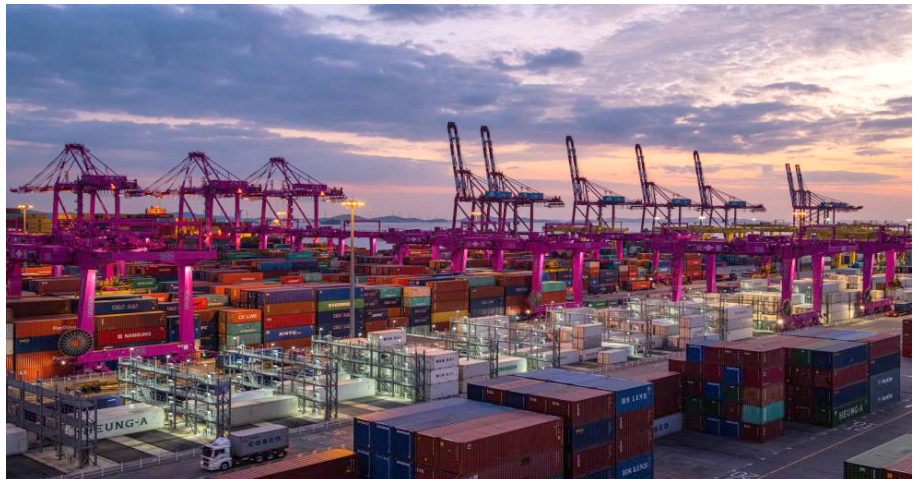
인천신항(한진, 선광)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1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 계획³⁾

- 인천항만공사(IPA)는 신항 SNCT에서 '25년 상반기 중 모두 13대의 전기 야드트랙터(YT)를 도입할 계획이라 밝힘

 - SNCT는 기존 운영 중인 디젤 YT 40대 중 노후 된 일부 장비를 가동 중단하는 한편, 새로운 전기 YT 13대를 도입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속한 하역작업 및 부두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며, SNCT는 오는 '28년까지 YT 전량을 전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기 YT는 탄소배출이 없기에 항만 내 오염물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근로자 생산성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함

 - 이에 IPA는 인천항의 첫 전기 YT 도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입 및 충전시설 설치의 애로사항을 살피는 한편, 운영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 밝힘



자료: 인천항만공사(IPA) 보도자료(2025.01.07.), (2025.01.1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1.07.),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203&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1.17. 검색)

2 '24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350만 TEU 돌파⁴⁾

- IPA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가집계(2024.12.30. 기준) 결과, '24년 목표인 350만 TEU를 돌파했다고 밝힘
-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4년 9월에서 11월까지의 물동량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목표 달성에 위기가 있었으나 이후 반등하여 목표치인 350만 TEU를 넘어섬
 - '24년의 경우 상선이 후티 반군을 피해 홍해를 우회함에 따라 5월~7월까지 운임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천항의 지중해 항 중고차 수출이 감소함
 - 더불어 국내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9월부터 수입화물 감소세가 나타났으나 인천항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물동량의 증가세가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견인함
 - 이에 따라, '24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만 TEU(잠정치 기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인천항 '24년 월별
컨테이너 물동량
(TEU,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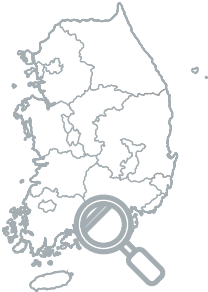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23년	272,720	228,889	298,929	287,422	281,699	280,121	287,090	284,667	307,488	299,631	312,689
'24년	310,823	261,235	297,998	314,247	310,314	295,270	278,027	301,629	286,175	297,506	283,746
증감량	38,103	32,346	-930	26,825	28,615	15,150	-9,063	16,962	-21,313	-2,125	-28,943
증감률	14.0	14.1	-0.3	9.3	10.2	5.4	-3.2	6.0	-6.9	-0.7	-9.3

자료: 인천항만공사(IPA) 보도자료(2024.12.30.), (2025.01.1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2.3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176&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1.17.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석유화학 위기 대응방안 모색⁵⁾

-  YGPA는 여수산단 주요 석유화학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에 선사와 화주 간 매칭데이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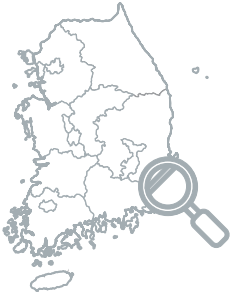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 YGPA가 주관한 선사-화주 매칭데이는 여수산단 내 주요 석유화학 화주사 및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 10개사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광양항의 항만물동량 증대를 목적으로 함
 - 석유화학 화주사들은 ‘항로 및 선복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사에 신규 항로 개설을 요청하였으며, ‘지역 화물 물량 수요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화주의 도착 항만별 물동량 수요를 파악한 후 선사 측에 제시함
 -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정적인 항만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주별로 물동량을 분석하여, 현재 기항 중인 컨테이너 정기선 서비스 노선을 제안함으로써 물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 YGPA는 이번 선사-화주 매칭데이가 석유화학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여수산단 지역 화주 및 선사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1.10.), https://www.ygpa.or.kr/hmpg/ygpa/comu/news/anuc/bordContDetail.do?mode=W&bbs_no=213&pst_no=78528C2E946840358C23AB3E993D8DF7(2025.01.17.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 획득⁶⁾

UPA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UPA는 해양환경공단(KOEM)과 협업하여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AMP)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을 완료했으며, KOEM의 550톤급 선박인 에코미르호의 정박 시 AMP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10년간 약 17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음
- '21년부터 시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391톤을 감축했으며,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 배출권을 늘려나갈 계획임
- 등록된 배출권 상쇄배출권으로 교환하여 기업에 판매할 수 있으나, UPA는 울산항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UPA, '25년 예산 2,156억 원 확정⁷⁾

UPA는 '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2.8%인 59억 원을 증액한 2,156억 원으로 편성하여 친환경 에너지 물류 허브 도약과 재무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임

- 예산 편성은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부 지침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UPA의 4대 경영목표 달성 및 친환경 에너지 항만 도약 추진할 계획임
- 4대 전략별 주요 예산은 '친환경 에너지 물류선도'를 위한 '남신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항만주도형 LNG 벙커링 합작법인 설립' 등에 105억 원, '고객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성능개선 및 보수보강', '화물유치 인센티브', '항만마케팅 강화'에 370억 원, '지속가능 경영실현'을 위한 '친환경 안전항만 구현', 'ESG 경영 강화'에 219억 원,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조직운영 및 경영혁신' 등에 70억 원을 편성함
- 특히, 만기도래 차입금 850억 원 상환과 함께 중장기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을 고려한 신규 차입 등 부채비율 20%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2.19.),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4564>(2025.01.16. 검색)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4.12.26.),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4565>(2025.01.16. 검색)

3 울산시, 암모니아 공급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⁸⁾

-  울산시는 세계 최초 암모니아 터미널 구축을 위해 암모니아 공급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계획임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울산항 일원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며, 선박 대 선박(STS) 및 육상 트럭에서 선박(TTS) 방식으로 암모니아 충전 기술을 개발할 예정임
 - 기존 부산과 경남이 소형 선박 중심 실증을 진행한 반면, 울산은 중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실증하며 세계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함
 - 울산은 세계 암모니아 운반선 점유율 55%의 조선산업과 아시아 최대 암모니아 유통량을 가진 화학 산업 등 최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특구 지정과 실증 사업 성공 시 울산은 암모니아 공급 사업화를 통해 지역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 규제 완화와 기술 개발로 조선 및 화학 신산업을 창출하며 생산유발액 988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480억 원, 59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됨
 - 울산시는 전문가 컨설팅과 TF팀 구성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했으며, 대형 선박 암모니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 평택·당진항



①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분양⁹⁾

- 분양 대상지는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인근으로, 6,556㎡~8,026㎡ 규모의 4개 필지로 구성되며 '28년 상반기까지 조성될 예정임
-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상업 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며, 최근 규제 개선으로 입주 업종이 대폭 확대됨
- 평택·당진항은 수도권 및 중부권에 인접하여 중국과 동남아 주요 교역국과 짧은 항로 거리를 통해 국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국도, 철도와의 우수한 연계성으로 내륙 지역 접근성이 뛰어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포항항



① 포항 철강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2년 연장 결정¹⁰⁾

- 중소벤처기업부가 철강·이차전지산업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 포항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2년 연장함
- 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경영 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산업단지·공업지역 등)에 지정하는 것임
-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직접 생산 물품의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국세·지방세 감면, 자금, R&D·사업화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짐
- 포항의 경우 지난 '23년 태풍 '힌남노' 피해로 포항철강 1~3단지, 포항 4일반산단, 남구 대송면 공업지역 등 5개 지역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당시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은 1월 25일자로 만료될 예정임
- 그러나 최근 포항지역 주요 핵심 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등의 불황으로 포항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을 요청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년 연장을 결정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9) 데일리안(2025.01.0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49437/?sc=Naver>(2025.01.16. 검색)

10) 매일신문(2025.01.15.),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11511235806434>(2025.01.20.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환동해권 물류·관광 거점항만으로 추진¹¹⁾

- 동해시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묵호항의 인프라 개발과 친환경 고부가가치 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배후산업 및 접근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동해·묵호항 활성화를 위해 항만 인프라 개발, 물동량 창출, 신규 항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5년에 완성될 해양수산부의 '동해·묵호항 종합발전계획' 및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동해시의 항만 개선·발전방안이 반영되면, 친환경 고부가가치 물류시스템 구축 및 항만·도시 간 부조화 해소가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해항(동해지구)은 컨테이너·잡화 중심 친환경·복합물류 신성장 거점항만으로 재편함

 - 기존 시멘트·석탄 등 벌크화물은 동해신항으로 이전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부두는 컨테이너·잡화 등 청정화물을 취급하도록 개편 중임
 - '27년까지 추진되는 묵호항 재창조 2단계 사업(묵호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신축 이전)으로 확보되는 육상 항만구역에 컨테이너 취급 인프라(CY, CFS)를 확충해 동해항의 고부가가치 항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내년부터 송정·나안동 일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해 배후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며, 이후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임
- 묵호지구는 관광·휴양·여가 기능을 도입해 해양관광 거점항만으로 탈바꿈함

 - 묵호항 배후 원도심의 노후화 및 묵호역·항만시설의 보안구역 설정 등으로 침체된 지역에 해양관광·산업·여객 기능을 복합화해 원도심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 신축 예정인 묵호 KTX 철도역과 묵호항 주변 배후지역을 통합 계획해 해양관광·문화·생활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함
 -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을 묵호항으로 이전·신축하고 주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선도 사업을 '27년까지 완료해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1) 강원일보(2024.12.27.),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122513252951572\(2025.01.21. 검색\)](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122513252951572(2025.01.21. 검색))

8) 목포항



1 목포시 '25년 시정운영 방향 발표 : 목포항 신성장산업 확보 지원¹²⁾

- 목포시는 1월 13일 임시회에서 '25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그중 해상풍력 및 친환경 선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산업 확보를 위해 목포항 개발 방향을 제시함
- 목포신항에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센터 건립,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임
- 남항에는 올해 준공 예정인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교육연구지구 조성을 통해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임
- 또한, 친환경선박산업 기반의 신성장산업 확보를 위해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 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 개발 사업 등 1,760억 원 규모, 총 5개의 정부 R&D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임
- 이 외에도 체류형 관광도시를 조성을 위해 북항 노을공원 명소화 사업 및 해 남항재개발 등 관광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9) 대산항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청), '연안주민 서비스 향상과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 추진¹³⁾

- 대산청은 '25년 예산으로 700억 원을 투입해 충청지역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주요 사업은 '대전-외연도 국고여객선(260톤) 건조', '오천-선촌 국고여객선 및 예비선 건조 착수', '장고항, 안흥항, 오천항, 남당항, 무창포항 등 국가어항정비', '가로림만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갯벌복원', '대산항 5부두 배후부지 안정화', '항로표지시설 개량', '도둔지구(서천) 연안정비',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정비', '해양청소선박(청항선 90톤) 건조' 등임
- 대산청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7%를 조기 집행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2) 목포시청 보도자료(2025.01.13.), https://www.mokpo.go.kr/www/mokpo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idx=532462&mode=view(2025.01.15. 검색)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1.15.),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8331>(2025.01.16. 검색)

10) 군산항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전경

① 특송화물 통관장을 활용한 물류 경쟁력 강화¹⁴⁾

- 전북특별자치도는 '24년 2월 개장한 특송화물 통관장을 활용하여 군산항을 대중국 전자상거래 거점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함
- 군산항의 특송화물 통관장은 전북자치도, 군산세관, 군산시, 석도국제훼리 등의 노력으로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통관장 시설 및 장비¹⁵⁾를 구축함
- 통관장 운영은 (사)한국관제무역개발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x-ray 1기 당 일 최대 11,000건의 처리가 가능하며, 하루 최대 33,000건의 반입물량을 통관처리 하고 있음
- '24년 독자적 통관장 구축 및 운영 결과, '23년 160만 건 대비 약 340% 급증한 약 700만 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달성함
-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은 인천, 평택, 부산에 이어 국내 4번째로 개장하였으며, 인천 공항과 연계한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 처리 등 군산항 물류 경쟁력 견인을 기대함



자료: 연합뉴스(2024.02.12.), (2025.01.1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4)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2024.12.23.), https://www.jeonbuk.go.kr/newsroom/board/view.jeonbuk?menuCd=DOM_00_0001101000000000&boardId=BBS_0000090&dataSid=589857(2025.01.17. 검색)

15)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은 x-ray 검색기 3대, 컨베이어 벨트 3대, 검역실, 판독실 등의 시설 및 장비로 구축

11) 마산항



1 경상남도, 마산항 가포신항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 추진¹⁶⁾

-  경상남도는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해 마산항 가포신항을 국제 전략 기항지로 육성하고자 함

 - 유류 창고를 활용해 CIQ(세관·출입국·검역) 임시 터미널을 조성,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 15만 GT급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입지로 평가되어, 적은 예산(약 30억 원)으로도 크루즈 유치에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한편, 통영항·사천 삼천포항을 소형 크루즈 연안 기항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통영항과 사천 삼천포항은 부두 개선을 통해 최대 5만 GT급 선박까지 접안 가능하도록 추진함
 - 이순신 장군 승전지 해안 순례길, 남해안 자연경관 등과 연계한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함
-  장기적으로 가덕도 신공항·남부내륙철도 등 대규모 SOC와 연계한 거제 장승포항 부두 확보 전략을 구상하고 있음

 - 유류 관광지 밀집 지역과 연계해 남해안 관광벨트 전반을 크루즈 노선으로 확장할 방안 검토 중임
 -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남해안 관광개발 전담기구 설립, 남해안권발전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6) 서울경제(2025.01.02.),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JE0FB5D?mobile>(2025.01.20.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24년 12월 중국 수출 가속화, 수입 회복세 기록¹⁷⁾

- ❖ '24년 12월 중국의 수출은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전년 대비 1.0% 증가세를 기록함

 -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약 7%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이보다 상회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감소세를 전망하였으나 증가세를 기록함
- ❖ 이번 수출 증가세는 중국의 춘절 및 미국의 트럼프 취임에 따른 영향으로 강세를 나타냈으며, 수입은 원자재 재고 축적 전략에 따라 소폭 증가세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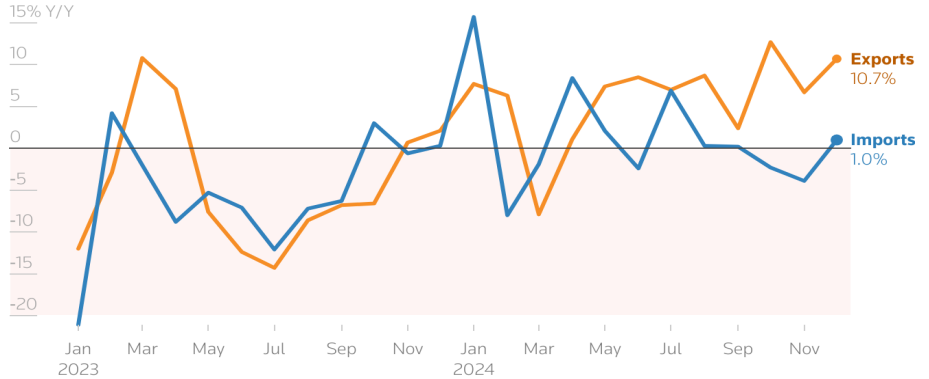
 - 중국은 '25년 춘절(1.28~2.4) 및 트럼프 복귀에 따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서둘러 화물을 수출하면서 강세를 나타냄
 - 수입의 경우 최근 구리와 철광석 등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화물의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7월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
- ❖ 한편, 중국은 최근 경기 부양책 이후 산업의 생산 활동 지표에는 안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수요 회복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조업 PMI는 3개월 연속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와 건설 부문에 대한 PMI 역시 12월에 회복세를 기록함
 - 그러나 여전히 장기화된 부동산 위기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5년 통화 정책 완화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외부 압력을 상쇄하고 국내 수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힘

17) REUTERS(2025.01.13.),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growth-quickens-amid-trade-risks-imports-surprise-2025-01-13/>(2025.01.15. 검색)

중국 수출입 전년 대비
증가율

Change in exports and imports



자료: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s-export-growth-quickens-amid-trade-risks-imports-surprise-2025-01-13/> (2025.01.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산동성 항만그룹, 미국 제재 선박 입항 금지 조치¹⁸⁾



중국 동부 산동성에 위치한 산동성 항만그룹은 미국의 제재를 받은 유조선들의 입항을 금지함

- 미국의 제재를 받은 국가는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이며 산동성은 원유를 수입하는 독립 정유사들이 많은 지역으로 지난해 산동성은 해당 국가로부터 약 174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약 17%에 해당함
- 금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연루된 선박 및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임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로 인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원유 수입 속도가 둔화되고 산동지역 독립 정유사들의 해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산동지역 정유사들은 제재를 받지 않는 선박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운송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이미 이란산 원유의 중국 판매 가격은 지난달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운송 용량이 감소하고 물류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해당 금지 조치로 가격 상승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8) REUTERS(2025.01.08.),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chinas-shandong-port-group-blacklists-us-sanctioned-oil-vessels-say-traders-2025-01-07/> (2025.01.1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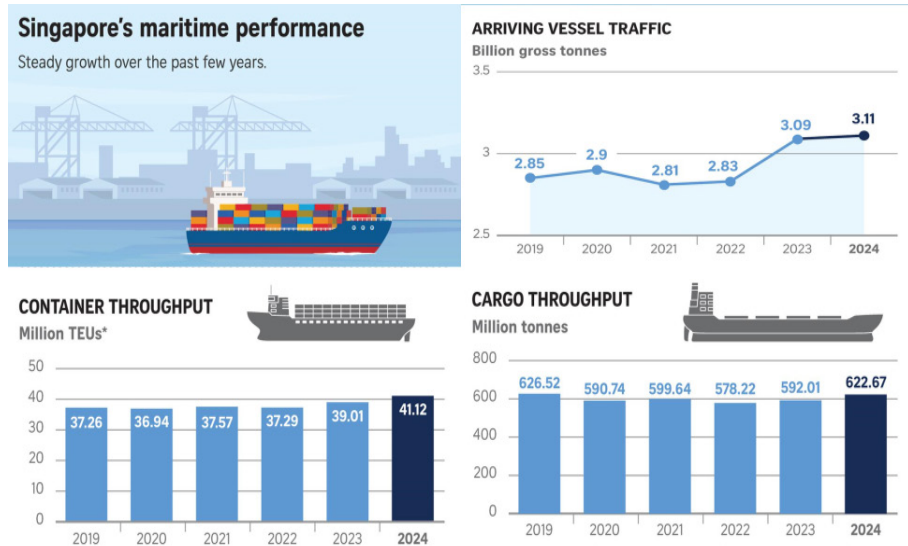
2) 아시아



1 2024년 싱가포르항만 주요 성과 발표¹⁹⁾

- 싱가포르 해양재단 신년 회담(SMF New Year Conversations)에서 '24년 싱가포르항의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함
- 먼저, 선박 입항 실적에 있어 '24년 모두 31.1억GT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으며, 이 중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의 비중은 약 90% 이상을 차지함
- 화물 처리량에 있어 같은 기간('24년) 모두 6억 2,267만 톤을 처리, 전년 대비 5.2%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컨테이너 물동량은 모두 4,112만 TEU로 처음으로 4천만 TEU 넘어섬
- 버거 연료 판매의 경우 5,492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6% 증가하였으며, 이 중 대체 연료 판매량도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134만 톤을 기록함
- 아울러 세계 최초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사용 시험에 성공하였으며, 전기 추진 선박 도입에 대비해 전기 충전소 시범 운영 및 배터리 교환시스템 기술 기준 개발 등을 '24년의 주요 성과로 발표함

싱가포르항의 2024년 주요 실적



자료: The Straits Times(2025.01.16.), (2025.01.17.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9) MPA(2024.01.15.), <https://www.mpa.gov.sg/media-centre/details/strong-growth-momentum-for-maritime-singapore>(2025.01.17. 검색)

2 나고야항, 터미널·물류 위한 수소연료 전지 지게차 도입²⁰⁾²¹⁾

- 나고야 항만청은 나고야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자와 항만 내 민간 운영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지게차를 도입했다고 밝힘
- 수소연료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나고야 항만청은 항만 부문 내에서 수소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연료전지 지게차는 토비시마 컨테이너 부두(Tobishima Container Berth)와 아사히 운유 카이사, 신코카이운, 카미구미, 토요 부츠류 등 물류 기업들이 각각 4대의 연료전지 지게차를 받음
 - 일본 국제 화물 운송 협회(JIFFA)에 따르면, 수소는 운송된 후 축전지 재충전에 하루가 소요되므로 격일로 배송되었으며, 주차장 등 유휴 공간에서 수소가 분배됨
 - 다만, 향후 최적의 수소 충전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0) Port Technology(2025.01.0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nagoya-introducesn-fuel-cell-forklifts/>(2025.01.20. 검색)

21) H2 View(2025.01.03.), https://www.h2-view.com/story/nagoya-port-rolls-out-hydrogen-powered-forklifts-for-terminal-and-logistics-operations/2119163.article/?utm_source=chatgpt.com(2025.01.20. 검색)

3 인도, 해운 부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²²⁾

인도의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국가 전자거버넌스부(NeGD)와 인도항만협회(IPA)는 해운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 협력은 NeGD의 기술 전문성과 IPA의 산업 지식을 결합하여 인도의 항만 및 물류 부문에서 운영 효율성 향상, 시스템 통합, 신기술 채택 등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 역량 강화, 신기술 채택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협업을 촉진하는 기술 주도형 해양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러한 노력은 인도의 해운 부문에서 디지털 인프라 부족과 같은 오랜 과제를 해결하고, 실시간 데이터와 고급 분석을 활용하여 운영을 최적화하며, 선박의 회전 시간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인도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로 전환된 항만 운영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2) Press Information Bureau(2024.12.26.), <https://pib.gov.in/PressReleaselframePage.aspx?PRID=2088196>(2025.01.20. 검색)

3) 미주



① 미국 동부 항만 노사, 잠정 합의 발표²³⁾²⁴⁾²⁵⁾²⁶⁾

- 미 동부와 걸프 지역 항만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와 사용자 연합인 미국해사동맹(USMX)이 6년간의 기본 계약에 잠정 합의하며 항만파업 위기가 해소됨

 - 미국 동부·걸프지역 36개 항만노동자가 가입한 ILA와 USMX는 현지시간 1월 8일, 새로운 6년 기본 계약에 대한 잠정 합의를 발표함
 - 잠정 합의는 자동화 기술 도입과 고용안정 문제를 포함하며, 합의안에 따라 반자동화 기술이 허용되지만 추가되는 장비마다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인력 감축 없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합의가 됐다는 분석임
 - 미 동부 항만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기존 39달러에서 63달러로 인상되며, 6년에 걸쳐 62% 임금 상승이 진행될 전망임
- 이번 합의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망 차질을 방지하며 미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됨

 - 합의안은 항만의 현대화와 기술 도입을 지원하며, 동부 및 걸프 해안 항만이 물류 허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업 우려 해소로 글로벌 해운 운임이 하락세로 전환되어 수출입업계의 물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한경글로벌마켓(2025.01.10.),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08599i>(2025.01.16. 검색)

24) trans.iNFO(2025.01.09.), <https://trans.info/en/us-port-strike-2-403276>(2025.01.16. 검색)

25) 이투데이(2025.01.09.),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6193>(2025.01.16. 검색)

26) 대한경제(2025.01.1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1131602234870966>(2025.01.16. 검색)

2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파나마에 군사력 투입 시사²⁷⁾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군사적 개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파나마 운하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의 높은 수수료와 중국의 전략적 통제 가능성을 문제로 삼으며, 운하 통제권 재인수를 주장함
- 트럼프는 파나마가 미국 선박에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며, 중국 군인들이 운하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파나마 운하 건설 당시 미국이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지미 카터 행정부가 이를 단돈 1달러에 파나마에 넘겼다고 비판함
- 중국 기업 CK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입구에 위치한 항구를 관리하며,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특정 통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며, 트럼프는 운하의 중국 장악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함

 파나마 정부와 국제사회는 트럼프의 주장과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운하 통제권 반환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임

-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가 전 세계에 개방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NYT는 미국이 군사 개입을 시도할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게 되며, 이는 미국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 공화당 소속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은 파나마 운하를 재매수해 미국 통제 하에 두는 법안을 준비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공화당은 과거부터 파나마 운하 통제권 양도에 반대해 왔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선 시절 운하의 소유권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7) 조선비즈(2025.01.10.),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1/10/46MESBJS3RF6VJDWWJB46BDKW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5.01.16. 검색\)](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1/10/46MESBJS3RF6VJDWWJB46BDKW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5.01.16. 검색))

4) 유럽

① 유럽, 러시아산 LNG 수입 사상 최고치 기록²⁸⁾

-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화석연료 의존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작년 유럽의 러시아산 LNG 수입량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리스타드 에너지에 따르면, '24년 유럽 항만에는 1,780만 톤의 러시아산 LNG가 도착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00만 톤 이상 증가한 수치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수입을 대폭 줄였으나, 러시아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로부터 선박 선적을 통해 수입한 양은 꾸준히 증가함
- '24년 러시아는 카타르를 제치고 유럽의 두 번째로 큰 LNG 공급국으로 부상했으며 (1위는 미국), 유럽은 러시아산 LNG 수입 중 49.5bcm(십억입방미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24.2bcm은 선박으로 수입했고, 이 중 일부는 다른 국가로 재판매된 것으로 추정됨
- 러시아산 LNG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해당 상품이 대체 공급국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EU는 '27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목표로 하지만, 가스에 대한 제재는 현재 석탄이나 석유처럼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25년 3월부터 EU 외 국가로 향하는 러시아산 LNG의 환적 금지를 합의했으며, 제재 시행 전 물량을 선적하려는 움직임이 증가 요인으로 추정됨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8) The Guardian(2025.01.09.),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5/jan/09/european-imports-of-liquefied-natural-gas-from-russia-at-record-levels> (2025.01.20. 검색)

2 폴란드 그단스크항, EU 물동량 순위 5위로 부상²⁹⁾

유럽연합 소속 통계 기관인 Eurostat의 발표에 따르면, 그단스크항은 '23년 7,978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여 로테르담, 엔트워프-브뤼헤, 함부르크, 암스테르담항에 이어 5위를 기록함

- 그단스크항의 물동량은 '22년 대비 26.3% 증가, 순위 또한 '22년 10위에서 '23년 5위까지 5단계 증가했으며, '14년 대비 177% 증가한 수치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냄
- 그단스크항은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항을 제치고 '21년 발트해 최대 EU 항구가 되었으며, 현재는 러시아의 우스트루가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그단스크항의 물동량 증가는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발트해가 에너지 공급 및 글로벌 물류의 중요한 경유지로 부상한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는 미국과 카타르에서 수입한 에너지 공급 및 우크라이나로의 인도적·군사적 지원을 위한 전략적 경로로 활용되었으며, '22년부터 그단스크항은 EU 내 두 번째로 높은 화물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25년 예산에서 약 4억 6,900만 유로를 해운산업 투자에 할당했으며, 여기에는 '28년 완공 예정인 스비누이슈치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저장 용량을 5배 증가시키는 그단스크 곡물 터미널 확장, 부유식 LNG 터미널 개발, 엘블롱 항구 개발을 위한 엘블롱 수로 준설 등을 포함함³⁰⁾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9) Eurostat(2024.12.20.),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Maritime_transport_of_goods_-_annual_data(2025.01.20. 검색)

30) Notes from Poland(2025.01.15.), <https://notesfrompoland.com/2025/01/15/gdansk-becomes-eus-fifth-biggest-port/#~:text=Gda%C5%84sk%20in%20Poland%20has%20become,data%2C%20which%20relate%20to%202023.>(2025.01.20.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해운업계, 장기 항만 파업 종식 촉구³¹⁾

● 호주 해운업계인 Shipping Australia(SAL)가 전국 항만 파업 종식을 긴급 촉구함

- 호주 전역에서 물류기업 겸 터미널 운영사인 Qube를 대상으로 한 노조 파업이 수개월째 진행 중임
- SAL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물류적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연방 정부와 주·준주 장관들에게 사태 종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함
- 노조가 임금 약 130% 인상안을 주장 중인 데 대해, 이미 Qube가 제시한 18% 인상안도 ‘관대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며 파업 장기화에 우려를 표명함

● 파업 장기화에 따른 해운·물류 현장 혼란 및 국가 경제 영향이 심화됨

- 파업 영향으로 자동차·중장비·대형 자재(빔 등)를 운송하는 선박들이 제때 접안하지 못하고, 일부 차량은 잘못된 항만에 하역돼 육상 운송비가 크게 증가함
- 특히 브리즈번, 포트캠블라, 멜버른, 애들레이드, 다윈, 프리맨틀 등에서 발생하는 파업이 자동차 및 중량 화물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 SAL은 일부 선박이 해안가에 대기하거나 주요 자동차 수입 터미널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이 상황이 길어질 경우 호주 경제 전반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SAL은 연방 고용·노사관계 장관에게 사태를 페어워크 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로 보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호주 산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함

● 이로써 호주 해운업계는 항만 파업이 국가적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한 사태 종결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향후 정부와 노조 간 협의 결과에 따라 호주 해운·물류 산업의 안정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1) The Loadstar(2025.01.08.), <https://theloadstar.com/shipping-australia-calls-to-end-disruptive-port-strikes/>(2025.01.15. 검색)

6) 아프리카



① 더반항, 컨테이너 처리에 심각한 문제 발생³²⁾

-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항이 스트래들 캐리어 부족으로 심각한 운영 차질 겪고 있음
 - 국영 물류기업 트랜스넷(Transnet)이 보유 장비 노후화 및 신규 장비 조립 지연으로 컨테이너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 항만 내 장비 고장과 기상악화가 겹쳐 화물 처리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 중인 선박도 증가함
- ▶ 기상악화와 장비 부족이 겹쳐 화물 운송·수출입업계에 직접적 피해 발생함
 - 강풍·폭우 등 날씨 영향으로 선박 접안 및 하역 작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더반 항만 주변 해상에 선박이 체류하는 상황이 이어짐
 - 로드 프레이트 협회(Road Freight Association) 회원사를 비롯한 물류·수출입 기업들이 손실을 호소하며, 장기적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함
- ▶ 노후 인프라 문제로 인해 더반항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세계은행 및 S&P 등 글로벌 평가기관에서 남아공 주요 항만을 하위권으로 분류해, 경쟁력 저하 우려를 제기함
 - 트랜스넷이 하반기부터 신규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나, 즉각적인 운영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 항만 위기로 민간 투자·운영 확대에 대한 요구 증가함
 - 장비 부족이 지속되자, 일각에서는 더반항의 일부 부두를 민영화하거나 민관 협력을 강화해 효율을 높이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항만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2) The Citizen(2025.01.18.), [https://www.citizen.co.za/news/no-resolution-to-container-handling-crisis-at-durban-port/\(2025.01.20. 검색\)](https://www.citizen.co.za/news/no-resolution-to-container-handling-crisis-at-durban-port/(2025.01.20.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1 '25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 둔화 전망³³⁾

- 해상 및 항공 시장 분석 기업인 Xeneta에 따르면 '25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는 전년 대비 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4년의 물동량은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하여 1억 8,000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성장률이 3%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24년의 높은 물동량 증가세는 각국의 공급망을 보호 및 향후 더 큰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 화주들이 대규모로 화물을 선적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중국과 멕시코 간 무역이 전년 대비 22.1%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중국과 미국 간 무역 전쟁 속에서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멕시코가 우회로로 선택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힘
 - 미중 무역 전쟁 확대 속에서 해당 무역로를 통한 수요는 '25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25년에 컨테이너 물동량의 성장 요인과 하락 요인이 상존하겠지만 '24년과 같은 화물의 대량 선적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한, 하락위험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물동량 성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빠른 감소, 독일의 경제 회복 등이 있으며 하락 요인으로는 자연재해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포함됨
 - 또한, 거시경제적 발전이 컨테이너 해운 수요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겠지만, 화주들은 지역 및 항만 간 시장 분위기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3) Freight News(2025.01.07.), <https://www.freightnews.co.za/article/growth-global-container-volumes-slow-2025>(2025.01.15. 검색)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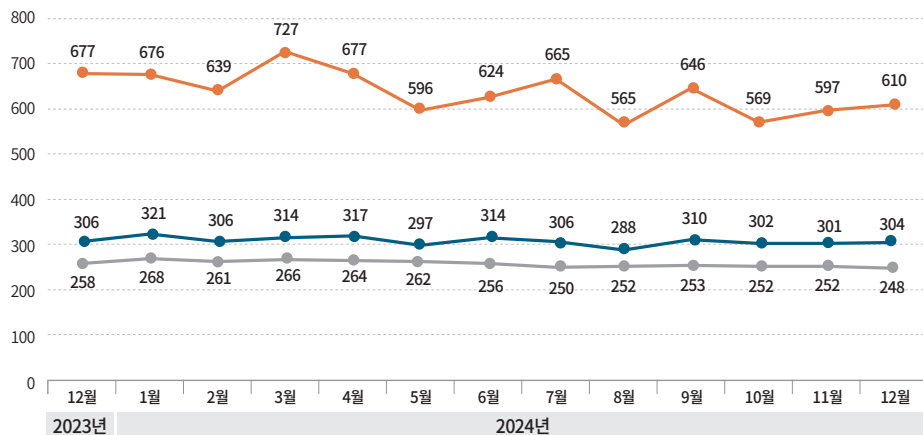


1

'24년 12월 밀, 콩, 옥수수의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추세 기록³⁴⁾

- 12월 밀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한 톤당 304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콩 역시 9.9% 감소한 610달러, 옥수수는 4.0% 감소한 248달러를 기록
- 대두의 경우 2023년 ~ 2024년 1분기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가격대를 형성 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로 전화되어 현재의 가격대가 이어지고 있음
- 반면, 밀과 옥수수의 수입단가의 경우 2024년 큰 폭의 변화 없이 현재의 가격대가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냄

(단위: 달러/톤)



(단위: 달러/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306	321	306	314	317	297	314	306	288	310	302	301	304	0.8	-0.7
대두	677	676	639	727	677	596	624	665	565	646	569	597	610	2.2	-9.9
옥수수	258	268	261	266	264	262	256	250	252	253	252	252	248	-1.7	-4.0

곡물별 수입단가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 (2024.12.31.), http://www.krei.re.kr:18181/new_sub01 (2025.01.22. 검색)

2 카자흐스탄 쿠릭항(Kuryk Port) 신규 양곡 터미널 개발 계획³⁵⁾

AD Ports 그룹과 Semurg Invest LLP는 쿠릭항에 신규 양곡 터미널을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고 밝힘

- 지난 1월 14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카스피해 연안의 쿠릭항에 개발될 것으로 계획된 신규 양곡 터미널(Sarzha 터미널)은 모두 2단계로 개발되며, 1단계 완공 시 연간 57만 톤, 2단계 완공 시 연간 150만 톤 규모로 개발될 예정임
-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5천만 불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 중 AD Ports 그룹은 3천만 불을 투자할 계획임
- 한편, 쿠릭항의 신규 양곡 터미널은 카자흐스탄과 유럽을 연결하는 초국경 국제운송회랑(Transcaspian International Transport Route)에 위치해 있음
- 카자흐스탄의 상품 수출 경로를 다각화하며, 터미널이 위치한 망기스타우(Mangystau)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5) World-Grain(2025.01.15.), <https://chatgpt.com/c/678a1930-1dac-8013-883d-c3ff27755f2e>(2025.01.17.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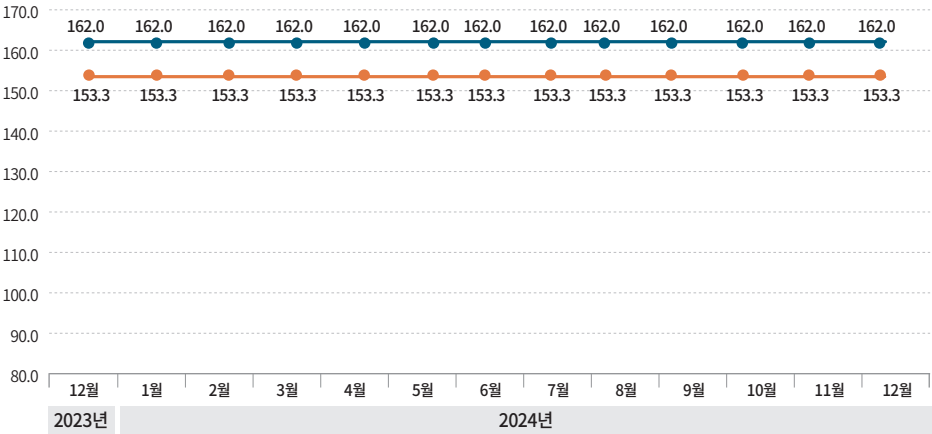
1 10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4년 12월 포틀랜드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62.0p 및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12월 이후 변동 없이 12개월간 보합세를 나타냄

(단위: 2020년 = 100 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0.0	0.0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1.21.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1.21.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 출하량 급감, '25년도 침체 지속 전망³⁶⁾

● '24년 시멘트 출하량,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 '21년 이후 5,000만 톤 대를 유지하던 시멘트 출하량이 지난해 4,419만 톤으로 약 11.6% 급감함
- 내수 출하량은 '23년 대비 13.2% 감소한 4,360만 톤 수준으로 떨어짐
- 업계는 올해도 출하량 상승 요인이 보이지 않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 재고 누적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시멘트 업계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사 연쇄 부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동아건설 법정관리)로 출하 수요가 둔화되고 있음
- 전방산업 침체에 따른 시멘트 내수 규모가 35년 만에 최저치 기록 가능성 제기됨
- '21년 87만 톤 규모의 재고가 '23년 158만 톤, '24년에도 135만 톤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업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고회율·제조원가 상승도 악재로 작용함

- 유연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오르며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비용 증가 역시 업계 수익성에 추가 부담될 것으로 보임

● 시멘트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재고가 계속 누적되고 출하량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아 향후 업계 전반의 경영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24년 시멘트 수급 통계

2020~2024년 시멘트 수급통계 단위: 천						주요 시멘트사 2023~2024년 1~3분기 실적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생산	출하	내수	수출	재고	2024 1~3분기			2023 1~3분기			
						업체명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2020	47,518	48,250	47,162	1,088	858	한일시멘트	12,992	9198	2358	13,057	9790	1818
2021	50,450	50,405	49,364	1,041	873	쌍용 C&E	12,266	9910	1067	13,186	11,098	784
2022	51,062	50,596	49,651	945	1,110	삼표	5751	4442	831	6000	4895	644
2023	51,116	50,963	50,237	726	1,578	아세아시멘트	8153	6113	1179	8864	6876	1066
2024	41,931	44,193	43,595	598	1,350	성산양회	8651	7081	580	8012	6606	391

자료 : 한국시멘트협회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대한경제(원자료: 한국시멘트협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공),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1151636447590368\(2025.01.18. 검색\)](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1151636447590368(2025.01.18.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6) 대한경제(2025.01.16.),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1151636447590368\(2025.01.18. 검색\)](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501151636447590368(2025.01.18. 검색))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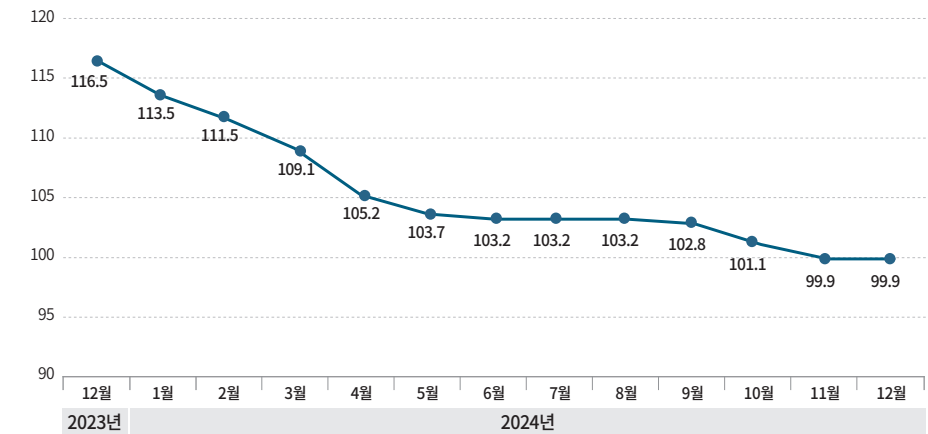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12월 생산자물가지수 99.9p 기록, '24년 지속적인 감소세

'24년 12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함

(단위: 2020년 = 100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16.5	113.5	111.5	109.1	105.2	103.7	103.2	103.2	103.2	102.8	101.1	99.9	99.9	0.0	-14.2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1.21.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1.21.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정부 골재 이력 추적·우중 콘크리트 타설 금지로 부실시공 원천차단 노력³⁷⁾

-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자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한국골재협회는 골재 채취부터 현장 납품까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관리하는 AI 기반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함
 - 이 시스템은 골재의 채취 장소, 시각, 규모, 품질 및 납품 정보를 포함해 불량 자재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양질의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공사 기준 개정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강화함**
 -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와 구조설계기준을 개정해 시공 품질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에는 저온 환경에서 강도 확보 기준 강화, 혼화재 사용비율 축소,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금지, 현장 양생 공시체 제작·시험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조치는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 중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함
-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 개정으로 천연골재 채취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한국환경연구원은 천연골재 채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개정을 추진 중임
 - 산림골재는 고품질 자재로 평가받지만, 현행 규제로 인해 수도권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번 개정은 천연골재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건설 자재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7) 대한경제(2024.12.30.),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412271805344870193(2025.01.21.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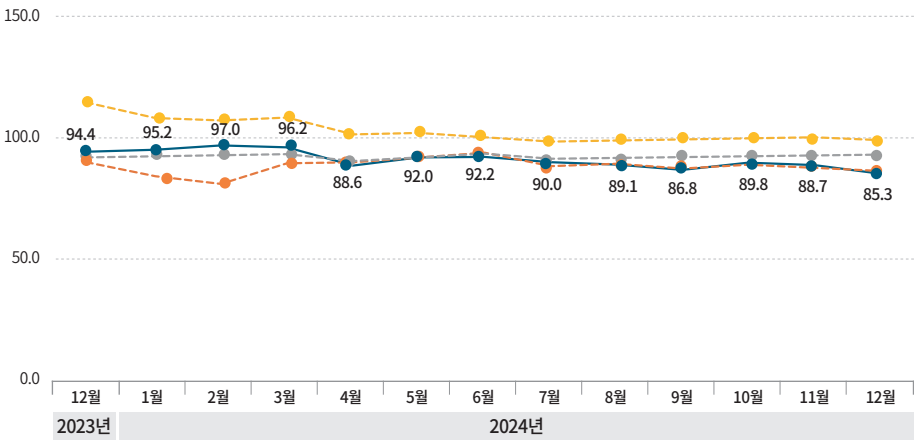
1 '24년 12월 유연탄 가격 전월 대비 감소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12월 평균가는 톤당 85.3달러로 전월 대비 3.9% 감소함
- 지역별로는 남아공 리차드베이산과 인도네시아 칼라만탄산, 중국 남부의 유연탄 가격이 각각 2.1%, 0.4%, 1.3%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4.4	95.2	97.0	96.2	88.6	92.0	92.2	90.0	89.1	86.8	89.8	88.7	85.3	-3.9	-9.6
리차드베이	89.7	84.1	81.0	89.6	90.1	92.4	93.9	88.3	89.5	87.5	89.0	88.3	86.4	-2.1	-3.7
칼리만탄	91.9	92.6	92.7	93.3	90.4	92.4	93.7	91.5	91.6	91.9	93.1	93.6	93.2	-0.4	1.4
중국남부	114.5	108.1	107.2	108.4	101.5	102.0	99.7	98.4	99.2	99.8	100.7	100.2	98.9	-1.3	-13.6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1.20](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1.20)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25년 OECD 회원국 내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5곳 불과³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개발 중인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25년 기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96%(140개)가 감소한 수치로, 사실상 석탄 발전이 종식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옴
- 30MW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전수 조사해온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진행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총 5개, 발전량은 3기가와트(GW)임
- 다만, 5개 프로젝트도 아직 건설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름
- 파리협정이 채택된 '15년 당시 건설 예정이던 석탄 화력발전소는 총 142개 111GW 규모였던 반면, 협정 채택 이후 82%인 91GW 규모의 사업이 보류되거나 취소됨
- 한국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나, 지난 1일부터 석탄 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 삼척블루파워의 가동 예상수명은 30년으로 계획대로라면 '53년까지 가동되며, 탄소중립 달성 목표 연한보다 3년 더 가동될 예정임
- 환경단체는 국제사회 흐름을 고려하여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한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들을 조기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8) 경향신문(2025.01.13.),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1442001\(2025.01.20. 검색\)](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1442001(2025.01.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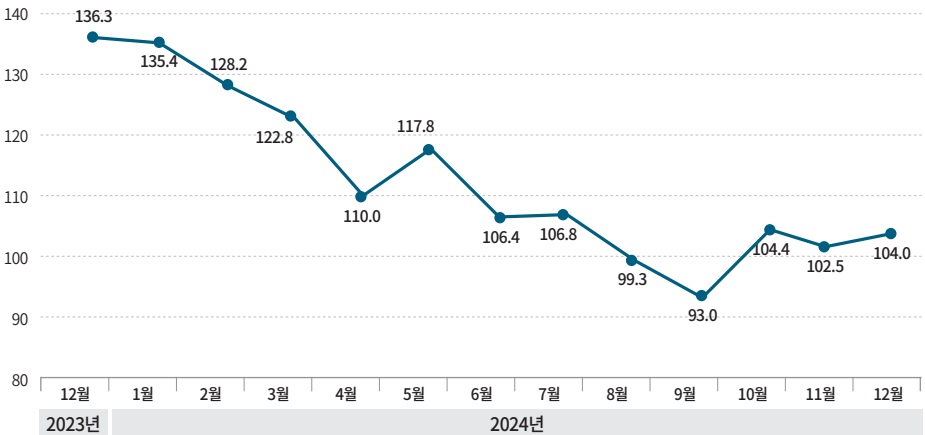
6) 철광석



1 '24년 12월 철광석 가격 전년 대비 23.7% 감소한 104.0달러 기록

- '24년 12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은 톤당 104.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12월 겨울철 심리 위축으로 하방 압력이 있었으나, 중국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상쇄하면서 전월 대비 1.4% 증가함
- 다만, 정책에 따른 기대 심리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5년 1월 철광석 가격은 하락세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36.3	135.4	128.2	122.8	110.0	117.8	106.4	106.8	99.3	93.0	104.4	102.5	104.0	1.4	-23.7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5.01.15.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24년 전 세계 철광석 수입량 전년 대비 3.6% 증가³⁹⁾

- ▶ '24년 전 세계 철광석 수입량은 세계 최대 철광석 수입국인 중국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17억 700만 톤을 기록함
 - '24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2억 7,4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 '24년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철광석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 확보 목적에 따른 영향임
 - 철광석 가격은 '24년 2월 이후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12월에는 전월 대비 23.7%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함
- ▶ '25년에도 철광석 수요는 크게 증가할 요인이 없으며, 가격 역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철광석 수입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우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광석 시장 역시 불안한 상황이며, 철광석 가격의 경우 낮은 철강 수요와 과잉 공급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9) GMK center(2024.01.09.), [https://gmk.center/en/news/global-sea-iron-ore-imports-grew-by-3-6-y-y-in-2024/\(2025.01.15. 검색\)](https://gmk.center/en/news/global-sea-iron-ore-imports-grew-by-3-6-y-y-in-2024/(2025.01.15. 검색))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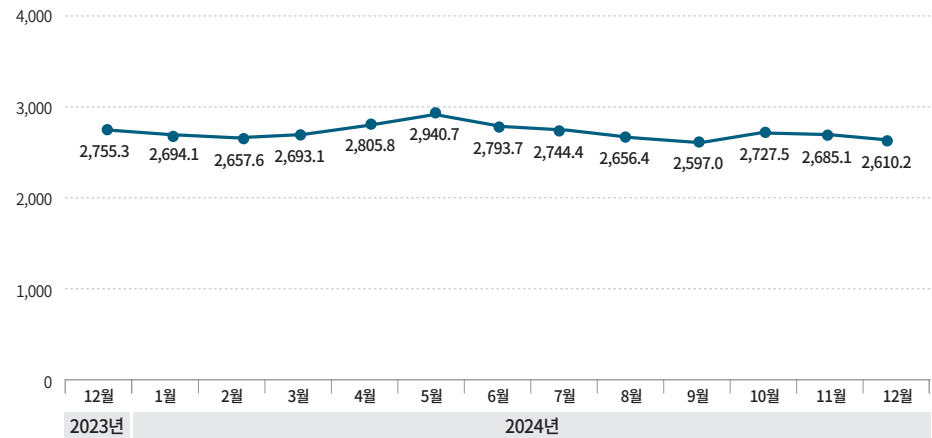


광물종합지수 추이

1 12월 광물종합지수는 2,610.2p로 전월 대비 2.8% 감소

’24년 12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2.8%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2,755.3p) 대비 5.3% 감소한 2,610.2p를 기록함

(단위: 2016년 = 1,000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755.3	2,694.1	2,657.6	2,693.1	2,805.8	2,940.7	2,793.7	2,744.4	2,656.4	2,597.0	2,727.5	2,685.1	2,610.2	-2.8	-5.3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IIndc/IndxMin\(2025.01.20.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IIndc/IndxMin(2025.01.20.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美,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이니셔티브 출범⁴⁰⁾

 미국은 지난 1월 9일, 자국 수입업체의 핵심광물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력 이니셔티브(SCRI)’를 공식 발표함

- 해당 이니셔티브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해외 생산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함
- 핵심광물을 둘러싼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됨
- SCRI는 미국 내 제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과 희토류 원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이 미국 내 제품생산에 사용되도록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프로젝트에만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미국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높은 비중을 견제하고자 중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중국 기술에 의존하는 프로젝트는 이니셔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축소하고, 자국 중심의 독립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임
- 이번 SCRI 출범은 미국의 광물 자급률 제고와 공급망 다변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동시에 주요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0) THE GURU(2025.01.18.), [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82278\(2025.01.20. 검색\)](https://theguru.co.kr/news/article.html?no=82278(2025.01.20. 검색))

8) 목재



1 '24년 1~11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152만 9천 m³로 전년 동기 대비 21.2% 감소

-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각재 수입은 감소하나, 목질판넬류는 국내 공급의 만성적 부족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음
 - 제재목 누적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으며 성형목재 누적 수입량도 4.9% 감소함
 - 합판(3.5%), 파티클보드(12.1%), 섬유판(26.2%) 및 목재펠릿(6.9%)의 누적 수입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하나 내년에는 미국의 건설산업 증가로 목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관세정책과 국내의 환율급등으로 가격 인상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4년 누적(1-11월)	2023년 누적(1-11월)	증감률 (%)
원목(천m³)	1,529	1,940	-21.2
제재목(천m³)	1,546	1,629	-5.1
성형목재(톤)	72,467	76,184	-4.9
합판(천m³)	1,257	1,215	3.5
파티클보드(천m³)	1,267	1,130	12.1
섬유판(천m³)	265	210	26.2
목재펠릿(천 톤)	3,609	3,376	6.9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4.12.26.),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01692&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1.21.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201692&bbsId=BB 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1.21.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산림청,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 발표⁴¹⁾

- 산림청은 제3차 목재이용종합계획에서 '29년까지 목재자급률을 18.6%에서 27%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경제림 육성단지 경영체계를 개선하고, 임업기계와 임도를 확충해 생산 기반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
 - 산림투자 지원을 통해 목재 수급 안정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순환경영 모델을 확산시켜 국산 목재 생산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임
- 목조건축 확대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할 계획임
 - 국산 원목의 용도별 유통체계를 개선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을 체계화하고자 함
 -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해 생산, 유통, 기술협력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시설과 어린이집에 국산 목재를 활용해 국민의 생활 속 목재 사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목조건축 전문가와 목구조 기술자 양성을 확대해 목재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함
 - 첨단 목재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신규 사용처 발굴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을 발표함
 - 목재 전문교육과 연구 지원을 통해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가 목표임
 - 전문인력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려 목재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1) 산림청(2025.01.13.),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1036&mn=NKFS_04_02_01&nttd=3203162(2025.01.21. 검색)

9) 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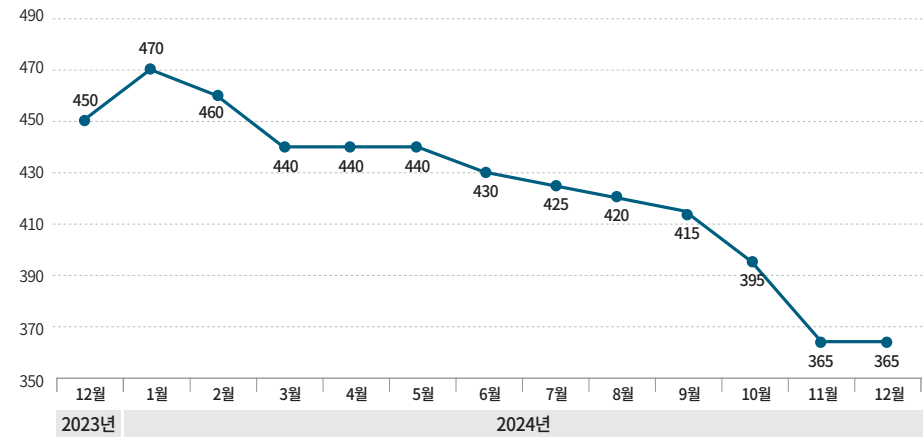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약보합세 기록

- 국내 12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인 톤당 36만 5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8.9% 하락한 수준임
- '24년 1월에 톤당 47만 원을 기록했던 고철 가격은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 또는 보합세를 기록하고 있음

(단위: 천 원/톤)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50	470	460	440	440	440	430	425	420	415	395	365	365	0.0	-18.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1.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1.24. 검색)

2 고철 수출 물동량 급증⁴²⁾

- ▶ '24년 12월 국내 고철 수출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9.4%, 전월 대비 131.9% 증가한 5만 7,800톤으로 지난 '21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12월 국가별 수출은 인도향이 2만 4,5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4.2% 증가, 베트남이 1만 6,200톤을 기록하여 655.2% 증가함
- '24년 10월부터 이어진 가격 인하로 국내 고철 가격이 주변국 대비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수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고철 총수출은 39만 1,000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에 이어 제강사 수요 감소로 고철 수출 규모는 올해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고 기민한 시황 대응이 가능한 컨테이너형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난해 국내 고철 총수입은 216만 톤으로 전년 대비 43.0% 감소하여 2년 연속 급감세를 이어가고 있음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2) 철강금속신문(2024.12.18.), <http://pdf.snmnews.com/PDF/REAL/2024/12/18/PS011218010100301B0001.pdf>(2025.01.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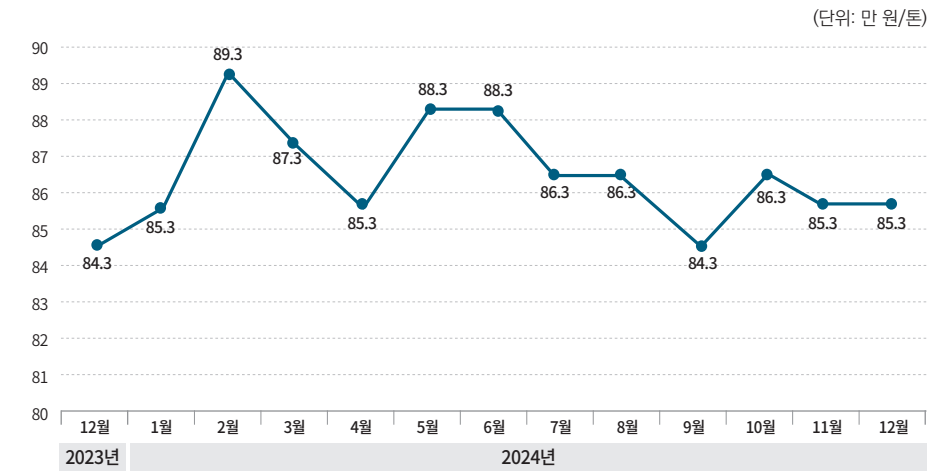
10) 철재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보합세 기록

- 12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인 85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84.3	85.3	89.3	87.3	85.3	88.3	88.3	86.3	86.3	84.3	86.3	85.3	85.3	0.0	1.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1.23.),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1.24.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1.24. 검색))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유럽철강협회, 철강 보호조치 강화 요청⁴³⁾

유럽철강협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세이프가드 쿼터를 줄이고, 관세율을 높일 것을 요구함

- 협회의 쿼터 축소 요청은 역내 철강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유럽 철강 소비는 '17년부터 지난해 사이 약 15% 감소함
- 협회는 국가 간 쿼터 거래에 15%의 상한선을 설정해달라고도 요청했는데, 한 국가는 다른 국가 쿼터의 일부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한도를 제한해달라는 요청이며, 열연강판과 선재에는 이미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음
- 국가별 맞춤 쿼터 강화, 잔여 쿼터 이월 금지와 함께 개발도상국 쿼터 면제 폐지도 요청했으며, 세이프가드 관세율도 현 25%에서 32~41%로 인상하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3 일본, 수입산 철강 규제 예고⁴⁴⁾

일본철강연맹은 수입 철강재 증가가 일본의 내수 공급망뿐 아니라, 철강업 탈탄소화를 향한 투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수입 철강재 대책을 경제산업성 등 정부 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상계관세 등 WTO에서 허용한 조치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공급망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말고도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함
- 일본의 철강 수입국은 한국, 중국, 대만 정도이며, 지난 과거에도 반덤핑 조사 대상국으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사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일본과 한국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CP)에 따라 거의 모든 철강 제품이 무관세인 상황임
- 우리나라 제조사들은 일본에 열연강판, 냉연강판과 같은 상공정 제품과 더불어, 도금강판, 컬러강판, 강관 등 하공정 제품도 수출하고 있고, 작년 일본향 전철강 수출 규모는 5조 3,800억 원이었기에, 일본 무역장벽 심화에 따른 타격이 우려되고 있음

조성현 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3) 철강금속신문(2025.01.15.), <http://pdf.snmnews.com/PDF/REAL/2025/01/15/PS010115010100201B0001.pdf>(2025.01.20. 검색)

44) 철강금속신문(2025.01.15.), <http://pdf.snmnews.com/PDF/REAL/2025/01/15/PS010115010100101A0001.pdf>(2025.01.20. 검색)

11) 자동차



'24년 11월 국내 자동차산업, 복합 악재로 전년 동월 대비
내수·수출·생산 모두 감소⁴⁵⁾

1

- 11월 내수는 전월 대비 1.4% 증가,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한 147,841대 기록함
 - 현대트랜시스 임단협, 폭설 피해 등 현대기아의 부품사 공급난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한국지엠, KGM 등 중견업체의 부진 영향을 받았으며, 르노코리아만 신차효과로 실적이 개선됨
- 11월 수출은 전월 대비 7.7%,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224,645대를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함
 - 중견 3사인 한국지엠, KGM, 르노코리아는 수출이 증가했으나, 현대·기아는 부품 공급난 확대와 마지막 주 폭설로 인한 생산 및 선적 차질 등으로 수출 감소함
- 11월 생산은 전월 대비 6.3%,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344,358대를 기록함
 - 중견 3사 실적 반등에 의한 가동률 제고에도 불구하고, 현대·기아 부품사 공급 차질 이슈와 폭설 피해 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함

단위 : 대, 백만 \$, %

'24년 1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률		
	연간	11월	1~11월	10월	11월	1~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739,249	160,476	1,596,004	145,756	147,841	1,483,423	1.4	-7.9	-7.1
(국산차)	1,451,663	132,502	1,336,679	122,841	121,713	1,227,095	-0.9	-8.1	-8.2
(수입차)	287,586	27,974	259,325	22,915	26,128	256,328	14.0	-6.6	-1.2
수출	2,766,271	244,930	2,519,065	243,408	224,645	2,530,792	-7.7	-8.3	0.5
(완성차 수출액)	70,864	6,529	64,479	6,201	5,640	64,740	-9.0	-13.6	0.4
(부품 수출액)	22,954	1,922	21,183	1,875	1,768	20,674	-5.7	-8.0	-2.4
생산	4,243,597	370,513	3,875,966	367,622	344,358	3,754,881	-6.3	-7.1	-3.1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2024.12.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32&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1.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5)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산업동향(2024.12.2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32&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1.16. 검색)

②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가동 3년 4개월 만에 파업⁴⁶⁾

-  GGM은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과 단체협상 주체 인정 요구로 부분 파업에 직면했으며, 회사는 설립 당시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근거로 이를 반박하고 있음
- 노조는 월 급여 7% 인상, 상여금 300%,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진행 중임
 - 회사는 협정서에 따라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전까지 상생노사발전협의회가 협상 주체임을 주장하며 대체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정상 가동 중임
 - 광주시는 긴급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조정중재위원회를 구성,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6) 내일신문(2025.01.15.), [https://www.naeil.com/news/read/535404?ref=naver\(2025.01.16. 검색\)](https://www.naeil.com/news/read/535404?ref=naver(2025.01.16. 검색))

3 BYD의 한국시장 진출 시작으로 지커·샤오펑·샤오미 진출 속도⁴⁷⁾

-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B2B 시장 중심으로 한국에 진출하며 렌터카 및 법인 차량을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음
 - 샤오미는 한국법인 설립과 함께 전기차 사업을 준비 중이며, BYD는 ‘아토3’ 출시와 조립공장 설립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지커와 샤오펑도 한국 진출을 모색하며 중대형 전기차를 앞세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는 과잉 생산 해소와 대중국 제재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과 유럽의 관세 및 제재 강화로 중국은 한국을 우회 수출 경로로 삼고 있음
 - 중국 전기차의 해외 시장 검증된 품질과 배터리 경쟁력은 국내 시장에서 잠재적인 도전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업계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국내 시장 진출 추진
예정인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한국 시장 공략

샤오미	BYD	샤오펑	지커
			
한국법인 사업목적에 '자동차 수입 및 도소매업' 포함	1월16일 국내 신차 출시	한국지사 설립 준비 대표 선임 등 국내 인력 확보 중	연내 한국 시장 진출 유력

자료: 머니투데이(2025.01.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1409160945629>(2025.01.16.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7) 머니투데이(2025.01.1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1409160945629>(2025.01.16. 검색)

4 미국, 중국 등 커넥티드카 부품 사용 자동차 판매 금지⁴⁸⁾⁴⁹⁾

 미국 정부는 중국·러시아 관련 기업의 커넥티드카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함

- 규제는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을 대상으로 하며, 소프트웨어는 '27년, 하드웨어는 '30년 모델부터 적용됨
- 차량제작사는 미국 내 판매를 위해 모델별 적합성 신고와 연간 유효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는 제출 의무 대신 10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함
- 한국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 의무 완화 등이 최종규칙에 반영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규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공급망 다변화와 SBOM 체계 구축을 지원하며 미국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8) 아시아경제(2025.01.1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11517103230426>(2025.01.16. 검색)

49) 브릿지경제(2025.01.15.),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115501499>(2025.01.16. 검색)

12)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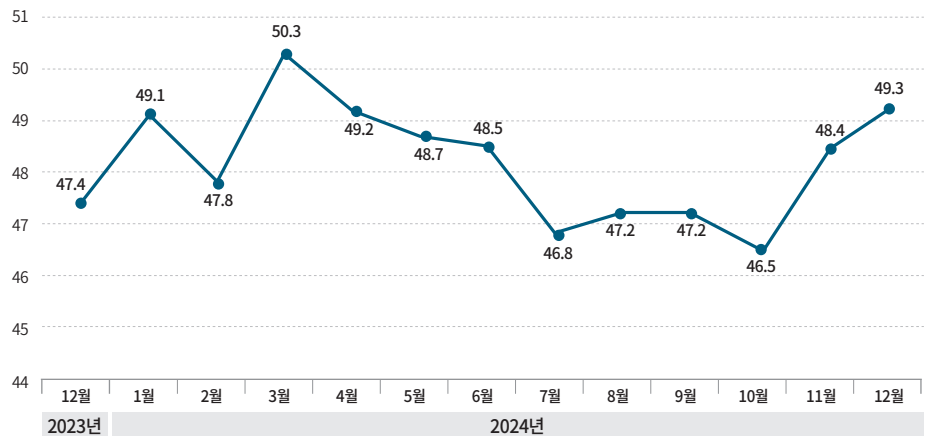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3p로 전월 대비 상승⁵⁰⁾

11월 PMI지수는 전월(48.4p) 대비 상승하였으며, 시장의 예상(48.4p)과 비교하여 높은 상승세를 보임

- 세부적으로 신규 주문 지수는 52.5p로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 제조업 생산 감소세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을 시사, 미 연준의 지속적인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냄
- 또한, 생산 지수는 50.3p로 6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제조업 생산 활동이 회복세에 접어들 가능성을 내포
- 마지막으로 가격 지수는 52.5p로 기업들의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결과적으로 신규 주문 및 생산지수의 상승은 제조업 부문이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가격 지수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으로 해석 됨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01.03.),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50) Trading Economics(2025.01.03.),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01.17.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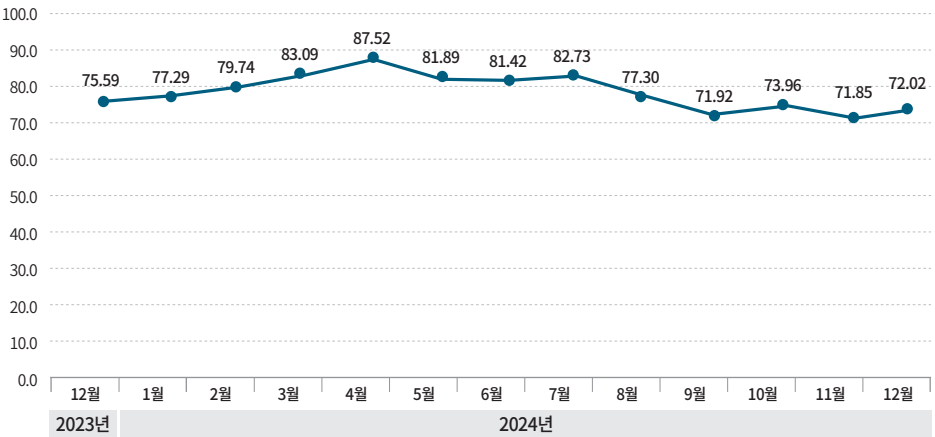
13) 유류



1 '24년 12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

- ’24년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12월 소폭 상승하면서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72.02달러를 기록함
- OPEC+ 중심의 석유 감산 정책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유가는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으며,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으로 친환경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원유 공급과잉이 전망되면서 내년에도 유가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국제사회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원달러 환율로 인해 국내 산업 및 가계에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7.33	78.85	80.88	84.18	89.17	84.04	82.56	83.83	77.60	73.52	74.94	72.61	73.23	0.9	-5.3
Brent	77.32	79.15	81.72	84.67	89.00	83.00	83.00	83.88	78.88	72.87	75.38	73.40	73.13	-0.4	-5.4
WTI	72.12	73.86	76.61	80.41	84.39	78.62	78.70	80.48	75.43	69.37	71.56	69.54	69.70	0.2	-3.4
평균	75.59	77.29	79.74	83.09	87.52	81.89	81.42	82.73	77.30	71.92	73.96	71.85	72.02	0.2	-4.7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v4/sub.jsp?fmul=KDFQSTAT&smul=KDFQ01&tmul=KDFQ0100&fmuOrd=03&smuOrd=03_01&tmuOrd=03_01_01(2025.01.19. 검색)

2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산업, 트럼프 2기 최대 수혜 산업으로 주목⁵¹⁾⁵²⁾

-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으로 미국 LNG 산업은 향후 5년간 수출 용량을 두 배로 확대하며 세계 최대 수출국 지위를 강화할 전망이다
- S&P 글로벌은 트럼프 당선인이 승인 중단 해제 및 신규 수출 터미널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업계가 향후 5년간 수출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여 미국 LNG 수출이 2조 5,000억 달러(약 3,650조 원)를 초과하고, 경제에 1조 3,000억 달러(약 1,900조 원)의 가치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함
 - 미국 최대 가스관 운용회사 중 한 곳인 ‘윌리엄스’는 이미 주요 LNG 공급업체와 대규모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으며, 미국 최대 LNG 개발업체 중 한 곳인 ‘벤처글로벌’은 IPO를 통해 23억 달러(약 3조 3,600억 원)를 조달할 예정임
 - 다만, 미국 LNG 산업의 확장은 규제 리스크와 환경단체의 법적 도전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환경운동단체는 신규 프로젝트가 기후 목표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SBS Biz(2025.01.15.), <https://biz.sbs.co.kr/article/20000212965?division=NAVER>(2025.01.16. 검색)

52) TV CHOSUN(2025.01.15.),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5/2025011590248.html(2025.01.16. 검색)

3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26년까지 원유 공급과잉 전망⁵³⁾⁵⁴⁾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사태가 '26년까지 이어지며 국제유가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EIA는 브렌트유가 올해 약 8%가 하락한 배럴당 평균 74달러, '26년에는 66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세계 원유 생산이 수요를 지속적으로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올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기존의 하루 1,352만 배럴에서 1,355만 배럴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수요 증가세 둔화가 과잉 공급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총 23개국이 참여하는 주요 산유국의 연합체인 OPEC+는 3가지 감산 프로그램을 가동 중인데, 감산 기조를 유지하여 가격 하락을 막으려고 하고 있음
-  또한, 미국 국무부는 올해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어 러시아산 원유 공급 감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미국, 가이아나, 캐나다, 브라질, 중동 등에서 원유 생산량 증가가 전망되며, 국제유가 상승에도 큰 시장 혼란은 없었음
 -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200개 단체와 183척의 석유 운반선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주요 구매국인 중국과 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글로벌이코노믹(2025.01.15.),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11506141919416b49b9d1da_1/article.html(2025.01.16. 검색)

54) 투데이에너지(2025.01.13.),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78618#google_vignette(2025.01.16. 검색)

4 정유업계, 지속가능항공유(SAF)·바이오 선박유 기술 개발 가속화⁵⁵⁾

- 정유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환율 급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SAF와 바이오 선박유 개발을 통한 친환경 사업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
- SAF는 탄소 배출량을 약 80% 줄이는 대체 항공유로, 유럽과 미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에쓰오일 등이 SAF 생산 및 수출에 나섰다
- 바이오선박유는 기존 선박유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34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11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정부는 국내 상용화를 위한 품질 기준과 법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업계는 SAF와 바이오선박유가 정유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지원과 기술 개발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5) 메트로신문(2024.01.06.),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0106500191>(2025.01.16.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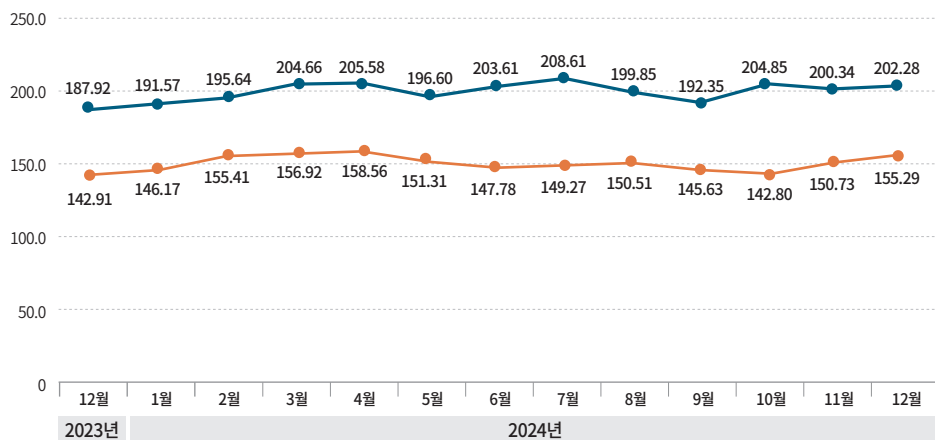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①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에틸렌 모두 상승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와 에틸렌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하여 각각 202.28p, 155.29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월 대비 1.0% 하락, 전년 동월 대비 7.6% 상승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와 연동, 전월 대비 3.0%, 전년 동월 대비 8.7% 상승함
- 유가 반등으로 12월 나프타와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가 상승했으며, 1월 들어 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다음 달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임



구분	2023년	2024년												증가율(%)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87.92	191.57	195.64	204.66	205.58	196.60	203.61	208.61	199.85	192.35	204.85	200.34	202.28	1.0	7.6
에틸렌	142.91	146.17	155.41	156.92	158.56	151.31	147.78	149.27	150.51	145.63	142.80	150.73	155.29	3.0	8.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1.21.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1.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미국의 청정수소 보조금, 글로벌 수소시장 판도 변화 예고⁵⁶⁾

- 
미국이 청정수소 생산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수소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음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45V 세액 공제’를 도입하며, ’30년까지 연간 1,000만 톤, ’50년까지 5,000만 톤의 청정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정책은 수소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그린수소와 블루수소에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Nel은 미시간에 5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임
- 
우리나라는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HD한국조선해양은 액화수소 탱크의 진공단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대형 액화수소 운송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함
 - 정부는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 및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한국을 주요 수소 교역 시장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6) 이코리아(2025.01.15.),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40>(2025.01.16. 검색)

3 HD현대, 선박용 액화수소탱크 개발⁵⁷⁾

HD현대는 선박용 액화수소 탱크 제작 및 진공단열 기술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수소 운송 시장 선점에 나선다

- 수소는 미래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히나 선박용 대형 액화수소 저장 탱크의 설계·제작 기술 부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액화수소 탱크 제작을 위해 특수 소재를 활용한 표준화된 용접 절차와 평가 기준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은 아직 없으며, 액화천연가스(LNG)보다 9배 이상 높은 액화수소 증발률을 억제하기 위해 탱크 내부 단열 공간을 진공상태로 만들어야 함
-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은 국제선급협회 4개 선급에서 액화수소 탱크 진공단열 기술에 대한 기본승인(AIP)을 획득하고, 특수 소재를 활용한 용접 절차와 평가 기준을 확보함
- HD한국조선해양이 새롭게 개발된 진공단열 기술은 영하 253℃ 극저온 환경에서 액화수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진공상태 형성 시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며칠로 단축시킴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30년까지 총 1조 원 조성⁵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조성, 친환경 연료 저장시설 구축 및 벙커링 전용 선박 신조를 지원할 계획임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로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이 해운·항만업계의 핵심 화두로 부상하였으며,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30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LNG, 메탄올, 암모니아 연료 저장시설 및 LNG·암모니아 벙커링 전용 선박 4척 신조에 투자해 친환경 연료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임
- 1호 프로젝트로 총사업비 2,400억 원의 '울산 현대 액체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호 프로젝트는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7) 내일신문(2025.01.15.), [https://www.naeil.com/news/read/535361?ref=naver\(2025.01.16. 검색\)](https://www.naeil.com/news/read/535361?ref=naver(2025.01.16. 검색))

58) 뉴스1(2025.01.13.), [https://www.news1.kr/economy/trend/5659052\(2025.01.16. 검색\)](https://www.news1.kr/economy/trend/5659052(2025.01.16.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2월 3일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